

6/10(금) 느헤미야 묵상 8

느헤미야 5:1-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 땅에 돌아온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이자 지배층에 속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백성의 원망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울며 원망하게 됩니다(1절, “**그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은데다가 지역에 흉년이 겹치고 또 그들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백성들은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잡히고 빚까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가난한 백성들은 자녀들을 종으로까지 팔게 됩니다(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의 분노는 한 형제요 가난한 동족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볼 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막 풀려난 유다 백성들이 같은 동족을 그같이 대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참을성 있게 문제를 안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약 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그리고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모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게 됩니다(7-8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의 해결책

느헤미야가 책망한 것과 제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형제에게 원금의 이자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꾸짖습니다(7절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신 23:19-20,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형제인 같은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부류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 9: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둘째로, 느헤미야는 더이상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채무액의 일부를 빚진 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10-11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자신이 그러한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믿는 자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훈하고 훈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 자신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그냥 눈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공의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바로 풀지 않고 먼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할 말을 바로 내뱉기 보다는 그 화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약 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조목조목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백성들의 잘못을 바르게 훈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책망과 교훈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인내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의 공격이 하루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우크라이나의 이산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민 신분으로 이웃 국가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도움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안식월을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 GMLF 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